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만족 제목 : 자족하는 마음 성경: 디모데전서
6장6-12절 (만족,자족,경건,의의
길,부자,가난,신약성경,디모데전서)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딤후 6:6-12)

자족하는 마음이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만족스럽다고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처지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사람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사람이란 원래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 당장에 전쟁이 터져도 저마다 살길을 찾아서 분주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곁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총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속으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다.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 아주 잘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맛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나쁘다. 왜냐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그는 불행하다.

사람이란, 에덴동산에서 살더라도 자족하지 아니하면 불행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살더라도 자족하면 행복하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란, 항상 만족을 느끼는 사람일까? 그것은 아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순히 감각이 무딘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항상 만족감과 불만족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항상 만족감과 불만족감을 반복적으로 느낀다면,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즉, 항상 만족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이다. 사실 만족이란, 누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물론 불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만족을 누리는 시간 보다는, 만족을 추구하는 시간이 더 길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계속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이다.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만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면 그는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게 되는지를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 즉 스스로 만족스러우려고 노력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태도가 습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마음을 더럽혀서 엉뚱하게도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

지 않으려는 쪽으로 태도를 길들이게 한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만을 경험한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런데 내 마음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기도록 하고 있거나 않은지 점검해 보자.

그리고 본래의 자기의 모습,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자신을 되돌리자. 자기 스스로는 원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삶 속에서 자족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자! 아멘.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은 바로 만족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 그렇다면 그는 경건하게 살면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크게 이익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만족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원래 잘 만들어져서 고장나지 않는 스포츠카와 같다. 이제 그에게는 좋은 네비게이션과 고급휘발유만 있다면 질주할 수 있다. 바로 네비게이션과 고급휘발유가 곧 경건이다. 그러면 그는 큰 유익을 얻는다.

그러나 불만스럽게 여기는 쪽으로 태도가 틀어진 사람은 마치 고장난 스포츠카와 같다. 그에게는 경건도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다만 구색만 갖춘 달리지 못하는 차와 같다.

자신이 고장나지 않는 스포츠 카인가? 그렇다면 다른 지도 말고 최신식 네비게이션인 성경말씀을 공부하자. 그리고 석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말고 고급 휘발유인 기도를 사용하자.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재물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재물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다.

인생에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 재물의 유무와 그 규모에 의해 짧은 인생이지만 얼마나 초라하거나 강력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비슷한 의미로, 외모, 학력, 재능, 건강, 인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7절의 말씀은 반어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은,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고 물어보시는 말과 같다. 그리고 남겨진 그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 왔느냐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단순히 청렴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를 계산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내가 죽을 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반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물려받을만한 사람인가와 동일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에게 재물을 물려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말이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재물을 주셔야 할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잘 모르겠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를 주셨으며,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자. 답은 금방 나온다.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까? 내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자.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면 당장 먹을 것과 당장 입을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는 뜻이다. 옷 한 벌과 한끼 식사로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와 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다.

정신 차리고 오늘 먹었으니, 오늘 입을 옷은 있으니, 지금 당장 더 큰 만족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라는 뜻이다. 오늘 일할 수 있는 연료만 있으면 너는 떨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상황이 오늘은 보디발의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디발에게가 아니라 그의 총무에게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만족스럽게 살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중에 총무가 되기도 하고, 정말 잘하고 능력있는 자라면 국무총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 당장은 한끼 식사와 옷 한 벌이면 족하지 않느냐는 의미.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한끼 식사와 옷 한 벌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되어 살면, 그는 올무에 걸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는 파멸을 맛보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돈은 필요한 것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돈이 나를 필요로 해야한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에게 지는 것이다. 내가 돈에게 굴복하는 순간 나는 파멸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족을 향해 뛰어가는 길을 명시해 놓으신 말씀이다.

과연 어떤 길로 뛰어갈 것인가? 광화문에서 동대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종로를 뛰어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을지로로 뛰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충무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명시해 주셨다.

그 길의 이름은 의의 길이다.

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가라.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길로 가라.

경건의 길을 가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

배하면서 가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가라.

그리고 싸워라. 싸움을 피하지 말라.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거짓말하거나 작당하거나 불법을 이용해서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으로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싸우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늘의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찬양예배>

주제: 이단 제목: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모략 말씀: 마태복음
7장 15-23절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
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
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
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5-23)

이만희(신천지)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신천지 탈퇴 한기총 기자회견문-을 중심으로

신 현 욱 (전 신천지교육장)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 신천지 신앙경력 >

1980년 신천지 시작

1986년 신천지 입교

1987년 신천지 지교회 동문교회 전도사 (1987년 시한부 종말론 불발됨)

1988년 신천지 본부교회 청년회장

1991년 신천지 본부 신학원 교육 강사

1992년 신천지 요한지파 새빛교회 개척 2006년까지 담임

2006년 11월 개혁 요구, 양심선언 후 탈퇴

< 입교에서 개혁 요구까지 >

성경 지식의 부족으로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약관의 나이에 접한 신천지 교리는 한 마디로 신선하고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론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배도-멸망-구원으로 요약된 성경의 맥 잡기와 성경을 성경으로 짚을 찾아 답을 구하는 비유 풀이는 신기하기까지 했고, 그 위에 얹혀진 소위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확신케 했다. 더욱이 기존 교회의 성경 공부 경시, 무조건적 믿음 강요, 십일조·건축 등 헌금 강조 내지 강요, 기복적 설교·기복 신앙의 만연, 목회자의 지나친 권위주의 등에 대한 거부감과 아쉬움이 많던 나로서는 쉽게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교리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87년 두 증인 중 한 사람인 홍 모씨가 자칭 예수라 하며 탈퇴했고, 87년은 창조 일곱째 날로 144,000수의 신인(神人)이 합일(合一)되어 영생불사의 신이 탄생(神誕)할 것이라던 예언이 불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나 **실상이 변경**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한편, 15년 동안 신학원에서 다양한 부류의 수강생과의 만남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신천지 교리의 편협함과 한계와 부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신인합일(神人合一) 후 영생불사(永生不死)’한다는 교리의 결정적 증거 성구인 계시록 20장 4~6절 즉 ‘순교한 영들과 표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일입니다. 신인합일 후 육체 영생 교리가 거짓이라면 이를 가르쳐왔고 또 가르쳐야하는 우리로서는 오직 육신의 영생 하나만을 바라고 올인(all in)하고 있는 신천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양심을 숨긴 채 가르칠 수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 교리 문제의 재정립

계 20:4~6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신인합일, 영생불사 문제)의 재해석
고후 12:1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간 사람을 바울이 아닌 계시록의 사도요한이라 함
계 13, 17장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실상이 수시로 변경, 수정되었으며 상호 모순됨

계 1~3장 사도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낸 역사적 사실을 부인함
기타 : 초막절과 수장절은 동일한 절기임에도 따로 지킴(7. 15 / 9. 24).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꿈과 소망을 성경적이지 않은 육적인 허황된 것으로 심어줌.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천사 같고, 천하를 호령하는 세상 왕 같고,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종으로 부리는 존재가 되니 그때는 세상의 재물이 다 신천지로 모여 오며 돈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서 이제 조금만 참으라는 말로 위로하고 위로 받고 있는 실정임.

새 언약 곧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과 **인 맞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잦은 시험을 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실족하는 사례 적지 않음.

* 신앙의 본질 회복

오직 144,000이라는 수를 채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집중하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신천지에 생겨났음.

예) 지나친 숫자 불리기에만 치우친 나머지 **형식적이고 거짓된 보고 만연, 인간성과 도덕성의 상실**,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오해하여 육적 자유함에 취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육적 생활의 방종**(음주, 흡연, 거짓말 미화 만연 등)청년들의 가출,부부간 이혼으로 가족의 해체 및 파괴, 청년들의 신용 불량자 양산 등

* 재정의 투명성 확보

* 교역자, 사명자의 후생비(월급) 현실화

* 각종 행사 규모와 의전의 개선

* 후계 세습 설에 대한 해명

* 총회 성전 건축 문제

* 세상 정치 세력과의 연계

< 이만희 씨의 반응과 탈퇴 >

“판을 깨자는 것이냐! 칼부림 나는 것을 보고 싶으냐! 네가 나를 잘못 봤어!”라고 말하는 등 무엇을 흠치려다 들킨 사람이 목격자를 헐박하듯 하는 이만희 씨의 반응에 충격적이다 못해 절망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비성경적, 비성령적, 비도덕적,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양심적인**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 신천지 교리의 뿌리 >

이만희 씨는 잠시 장로교 신앙을 하다가 한국 교회 이단의 대부 격인 박태선 씨의 전도관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전도관 탈퇴자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집단 취락을 형성한 과천의 장막성전(유재열)을 거쳐 장막성전의 일곱 천사 중 하나였던 자칭 하나님 백만봉 씨의 제자로 들어갔다가 1980년 3월 14일 백만봉 씨의 시한부 종말설의 불발과 함께 신천지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소위 실상이라는 허황된 교리위에 통일교 와 그 아류인 생령교회의 교리로 채색된 ‘신탄’과 ‘계시록의 진상’이란 두 권의 책이 나오면서 신천지 교리의 뿌리와 골격이 대체적으로 형성됩니다.

그 후 1987년도 9월의 시한부 종말설이 불발되면서 이만희 씨가 직접 계시록 해설서를 수차에 걸쳐 조금씩 수정해서 출간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정될 것입니다.

< 신천지 교리의 핵심 >

* 과천 장막성전에서 시작된 계시록의 실상교리

신흥 이단 교회였던 과천의 장막성전이 정통 교회로 개혁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꿰어 맞춰 실상이라 합니다.

예) 유재열 씨는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이며, 초림 때 길 예비사자 세레 요한의 입장으로 온 사람. 유 씨 부자 등 일곱 사람은 배도자로서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일곱 별. 개혁의 주체였던 오00 목사는 멸망의 아들, 이방 사람의 아내 밋세바 에게 나서 이방신을 섬긴 솔로몬과 같은 자, 또한 땅에서 올라온 666짐승, 뱀,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째 왕. 이만희와 홍 모 씨, 이 두 사람이 옥고를 치른 사건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 고 탁명환목사는 계시록

17장의 음녀이며, 청지기교육원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유재열 씨의 해외 유학은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 받는 사건 등으로 가르칩니다.

이만희 씨는 이를 배경으로 장막성전 출신인 자신을 다음과 같이 증거 합니다.

계시록의 실상을 사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 계시록 1~4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7별에게 편지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 같은 자, 6장과 19장의 예수님께서 타신 백마, 10장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아먹고 가르치는 약속한 목자, 12장의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 1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어린양의 신부, 2-3장에서 니골라 당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성이 함께하는 이긴자, 12장, 13장, 15장, 17장의 예언대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과 싸워 이긴자, 마태복음 24장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한마디로 이만희 씨는 신천지 인들에게는 말세에 약속한 목자, 계시록의 사도요한과 같은 사명자, 말세의 구원자, 오늘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야, 그리스도로인 셈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는 계15:5에 약속된 증거장막성전이고 계14:1에 144,000명이 서있는 시온산의 실상이며, 이곳이 말세에 약속된 성전과 구원의 처소라고 주장합니다.

* 성경의 짝을 찾는 비유 풀이

위와 같은 실상 교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교주형 이단들이 반드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신학원 인도 전 단계인 소위 복음방과, 신학원 초등 과정에서 비유풀이를 통해 잘못된 설계 도면을 주입식으로 세뇌시킨 뒤 그 도면대로 만들어진 계시록의 거짓된 실상이라는 건물을 소개합니다.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에서 많이 강조했던 이사야 34장 16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전제하고 성경에서 성경을 영어 단어 공부하듯, 국어 낱말 뜻 공부하듯, 수학문제를 공식에 맞춰 풀듯합니다. 문장이나 비유의 말씀이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화자의 의도를 찾아야함에도 단순히 낱말을 연결하는 식의 해석을 시도하다보니 논리의 비약 차원을 넘어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거짓된 실상을 합리화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비유한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물과 불과 양식은 말씀, 그릇은 사람의 마음, 도장과 나팔은 사람, 말(馬)은 육체, 새는 영(靈), 왕과 소와 들은 목자, 우상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목자, 무덤, 바벨론은 진리가 없는 교회, 산, 배는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사실 무근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대입할 시 심각한 성경 왜곡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성경 해석인데도 이런 성경 공부에 생소한 성도들은 많은 경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매님의 아버님은 도둑이신 모양이지요?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님의 눈 속에 넣어 놓으셨으니까요!

이런 말을 했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삼척동자라도 자매의 눈이 영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은유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식 비유풀이는 어떻게 풀어나갈까?

아버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도둑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은 무엇을 말하며

별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본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면하고
자신들이 맞춰놓은 공식에 따라 엉뚱한 의미로 결론내린다.
진짜 그런지 살펴보자

마태복음 25장 1-13절까지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은 무엇 인가?

예수님은 13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오실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깨어 준비하라고 결론짓고 계신다.

그러나 신천지는 기름을 말씀으로 대입시켜

기름 파는 자를 이만희와 강사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기름 파는 자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름을 산 자들도 들어가지 못했다.

신랑이 예수님이요 신부가 그리스도인들이요.

결혼식이 천국혼인잔치라면

이만희와 강사들은 아무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못했 다는 결론이 내려지
지 않는가?

*청계산 -‘계’는 시내계, 그러니 시내산이다?

*천사를 그룹이라 했다. 영어로 그룹이라고 가르침

* 죽지 않고 영생을 준다하니, 일단 믿어 보자.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이
나 내 맘에 들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자.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희
생하자. 작은 것들에 오류가 있다면 큰 것에는 오류가 없을까? 죽지 않
는다니? 이걸 믿나? 죽지 않는게 영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영
생. 부활이 영생.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이만희가 죽을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인생을 이만희에게 걸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무식한 사람들.

* 신인합일과 육체 영생교리

조건부 시한부

신천지 인들만큼 기복적이고 미신적이며 욕심 많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 신천지 전도 전략 >

1. 추수꾼 양육 과정 (제자 훈련 시스템 ; 복음방 정교사)

신천지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고 정통교회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이유는 마태13장 가라지의 비유를 근거로 추수 때는 예수님이 씨를 뿌려 놓은 추수 밭 곧 정통교회에 가서 알곡을 모아 담아 곳간인 신천지교회로 인도할 때가 추수 때이며 지금이 그때라고 가르치는 핵심교리 때문입니다. 정통교인들이 신천지 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먼저 소개하면, 섭외를 통해 복음방 교육으로 다음은 신학원 교육 과정으로, 수료자교육으로, 추수꾼 양육으로, 사명자 양육 단계로 점차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추수꾼 양육 과정인 복음방 정교사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기수별 복음방 교사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약 40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섭외 방법훈련, 유도멘트훈련, 스피치훈련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시험과 전도실적에 따라 복음방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전도의 실력자들을 특전대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총회 특전대, 지파 특전대, 지교회 특전대, 부서 특전대등으로 구분합니다.(별첨1참고)

2. 복음방 운영(다양하게 가장한 명칭 사용)

◎ 섭외 방법

모략이라는 이름하에 각양각색의 거짓말을 지어내어 꿈과 우연을 가장한 만남, 탤런트를 능가하는 연기와 연극을 서슴지 않고 시도합니다. 또 상황극을 만들어 사전에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간단한 실 예를 들자면, 성경책을 보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이사를 왔다는 명목으로 가까운 좋은 교회를 소개받고 싶다**며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엡6:14-17 말씀을 주셨는데 급하게 찾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 신앙에 큰 도움을 주셨던 선교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데 마침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니 기도 받아 보시고 말씀도 한번 들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혹은 “어제 밤 꿈에 집사님을 보았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계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옷에 구멍이 난걸 입고 계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마침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전도사님이 다니엘 같이 꿈 해석을 잘 해주셔서 제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분이 이 근처에 오셨다가 기도해주시려고 오신다는데 한번 물어 보면 어떨까요?” 하는 식입니다.

이 외에도 **업그레이드된 설문조사**, 노방 좌판에서 말씀Tape 주기, 가가호호 방문하여 북한선교 또는 해외선교를 위해 안보는 성경책 및 헌옷 수거하기를 합니다. 또한 대학가내에 위장 동아리를 설립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큐티 모임 및 문화센터와 카페 등을 운영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영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을 미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섭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처와 주소인데 이것을 통해 친분형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핸드폰 및 이메일 문자를 통해 관심과 교제를 나누어서 마음을 사서 의심을 풀 다음 성경을 통해 신앙에 도전을 주어 복음방으로 유도합니다.

◎ 섭외 장소

또한 대담하게 정통 교회에 2-3명이 한 팀이 되어 추수꾼으로 침투하며, 빼내가는 정도가 아니라 산 옮기기 전략으로 담임목사나 교역자들의

신임을 받은 후 중요 직분과 직책을 맡아 목회자 및 교역자들의 허물을 들추어 교회를 분란케 하고 당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빙자하여 신천지 인들을 속속 침투시켜 힘 있는 장로나 직분 자를 부추겨 목회자나 교역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화 시키려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3. 신학원 및 교육관 운영

◎ 간판 (명칭)

획일적이지 않고 정통교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열린 성경 교육원, 두란노 선교회, 모퉁이들 선교회, 총회 신학원, 참사랑 선교회, 평신도 교육원, 기독교 신학원, 시온기독교 신학원, 로고스 성경 연구원, 바이블 아카데미, 하늘씨앗 선교회, 엠마오 선교회 등입니다.

◎ 수강 중 유월(소속 교회를 옮긴)자들은 신학원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며, 이때 될 수 있으면 정신 교육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고 설득을 통해 추수밭(본인이 섬기는 정통교회) 활동을 하는 추수꾼으로 있게 합니다. 이면적으로는 신천지 인을 만들고 표면적으로는 정통교인으로 가장 시켜 정통교회에 모든 정보와 일꾼들에 신상을 또 다른 신천지 추수꾼들에게 제공합니다. 본인은 고정간첩 역할이므로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 수료자격은 전도 열매 1명 이상과 수료시험 80점 이상입니다.

◎ 입교절차는 섭외→복음방→신학원→교적부 작성→수료→새신자 교육→새신자 예배 참석→교회 예배참석→부서편입→교회등록→총회 등록 순입니다.

< 신천지 교회로 인한 사회적 문제 >

특히 젊은이들이 가출하는 문제, 이혼, 윤리의식의 부패

< 한국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 >

모략으로 파렴치한이 됨

더 나아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단들의 발원과 극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충족감을 주지 못한 한국 교회의 취약함**에서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 실상은 철저히 조작된 허상이며 수많은 이단을 전전하며 이만희 씨 자신이 속았던 교리를 짜깁기하여 만든 모방 작품이며 이만희 씨는 절대 육체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신천지 이만희 씨와 싸우는 최 전방에 <갓피플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